

유진디에스제일차(주)

본평가
평가일: 2017.4.19

유동화전자단기사채 신용등급

(단위: 억원)

구분	발행한도	발행(예정)일	만기(예정)일	신용등급
제 1 회차 ABSTB	500	2017.04.19	2017.05.10	A2+(sf)
제 2 회차 ABSTB	500	2017.05.10	2017.05.16	A2+(sf)
제 3 회차 ABSTB	500	2017.05.16	2017.05.23	A2+(sf)
제 4 회차 ABSTB	500	2017.05.23	2017.05.30	A2+(sf)
제 5 회차 ABSTB	500	2017.05.30	2017.06.07	A2+(sf)
제 6 회차 ABSTB	500	2017.06.07	2017.06.13	A2+(sf)
제 7 회차 ABSTB	500	2017.06.13	2017.06.19	A2+(sf)

주1: 예정발행일 및 예정만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직전 영업일을 발행일 및 만기일로 함.

주2: 유동화자산 등의 조기상환 등으로 어느 회차 유동화증권의 발행금액이 발행예정금액보다 감액되는 경우 이후 발행되는 유동화증권의 발행예정금 및 발행한도금액은 해당 감소액만큼 감액 조정됨.

Analyst

신윤섭 책임연구원 yoosub.shin@scri.co.kr	02) 6966-2459	박민식 실장 mspark@scri.co.kr	02) 6966-2461
-------------------------------------	---------------	-----------------------------	---------------

거래참가자

거래유형	대출채권 유동화
자산보유자	-
업무수탁자	흥국생명보험(주)
자산관리자	유진투자증권(주)
대출금채권 매입확약 및 자금보충 기관	유진투자증권(주)
법률자문기관	법무법인 퍼스트
자산실사기관	-
주관회사	유진투자증권(주)

주)정보제공자: 주관회사

유동화자산

유동화자산	대출채권 및 부수 권리
차주	대성산업(주)
대출원금	500억원
대출실행일	2017.04.19
대출만기일	2017.06.19
이자지급	대출실행일 선취
원금상환	만기일시상환(조기상환 가능)

평가의견

서울신용평가(주)는 유진디에스제일차(주)(이하 'SPC')가 발행할 제1회차 내지 제7회차 유동화전자단기사채(이하 'ABSTB')의 신용등급을 A2+(sf)로 평가하며, 주요 평가요인은 다음과 같다.

- 유진투자증권(주)의 대출금채권 매입확약 및 자금보충

유동화 개요

본 유동화는 SPC가 대성산업(이하 ‘차주’)와 체결한 대출약정에 의한 대출약정금 500억원의 대출을 실행하기 위해 제1회차 ABSTB를 발행하고, 향후 차주에 대한 대출채권의 관리, 운용, 처분에 의한 수익 또는 ABSTB의 차환발행대금을 통해 본건 ABSTB를 상환하는 구조이다.

차주는 차주의 발행 회사채 상환을 위해, 보유하고 있는 디에스파워(주) 주식 29.0% 등을 매각하는 주식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SPC는 차주 회사채 만기일과 주식매매계약 종결일 사이에 브릿지론을 대여하게 되며, 차주는 향후 주식매매계약 종결에 따라 수취하는 주식매매대금을 재원으로 SPC에 브릿지론을 상환하게 된다.

유동화자산

본 유동화의 기초자산은 2017.4.18일 SPC와 차주가 체결한 대출약정에 의한 원금 총액 500억원에 해당하는 대출채권이다. 대출채권의 이자는 대출기간에 대한 이자 전액을 대출실행일에 선취한다. 기지급된 이자는 반환되지 않는 조건이나, 임의조기상환이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임의조기상환일로부터 대출만기일까지의 대출이자 상당액을 반환하게 된다. 대출금은 만기일인 2017.6.19일에 일시 상환되는 조건이나, 임의조기상환도 가능하다. 차주는 대출약정에서 정해진 임의조기상환일(2017.5.10일/2017.5.16일/2017.5.23일/2017.5.30일/2017.6.7일/2017.6.13일) 5영업일 이전에 대리금융기관인 유진투자증권(주)에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최소 10억원 이상 5억원의 정수배로 임의조기상환을 할 수 있다. 한편, 차주는 상기 주식매매 계약에 따라 매수인이 잔금을 납입하는 경우에는 동 금액 전액을 ①해당 금원의 수취일과 ②매매대금 입금계좌에 대한 제1순위 근질권(근질권자: 매수인)이 말소되는 날 중 늦게 도래하는 날에 대출원리금을 의무조기상환하여야 한다.

주요 위험요인과 통제방안

본 유동화와 관련하여 검토된 주요 위험요인은 유동화자산의 신용위험, 유동화증권의 차환발행위험 등이다.

유동화자산의 신용위험은 차주가 대출채권 원리금을 적시에 상환하지 못해 ABSTB 적시상환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이다. 또한, SPC는 유동화자산의 만기일까지 ABSTB를 차환발행 할 예정으로, 차환발행하는 ABSTB의 시장 미매각 등 차환발행위험이 존재한다.

상기 위험요인은 유진투자증권(이하 ‘매입확약기관’)의 대출금채권 매입확약 및 자금보충 의무로 통제된다. 2017.4.18일 SPC와 매입확약기관 간에 체결된 ‘대출금채권 매입확약 및 자금보충에 관한 계약서’에 따르면 매입확약기관은 매입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①원금 500억원의 대출금채권을 매입하거나 ②ABSTB의 상환에 부족한 자금 상당액을 액면금액으로 하여 SPC가 발행하는 사모사채를 전액 인수하거나 ③ABSTB의 상환에 부족한 자금 상당액을 SPC에 자금을 대여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한다.

매입사유는 ①ABSTB의 만기일에 ABSTB 원금 등을 포함하여 업무위탁계약에서 정한 필요 금액의 지급이 어려운 경우 ②업무위탁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ABSTB가 발행되지 않는 경우 ③차환발행되는 ABSTB의 전액에 대한 인수계약이 차회차 ABSTB 발행일 정오까지 체결되지 않는 경우 등으로 설정되어 있다.

상기 위험요소들과 이에 대한 통제방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본 ABSTB의 신용등급은 차주의 대출금채권 매입확약 및 자금보충 기관인 유진투자증권(주)의 신용도와 연계되어 있으며, 서울신용평가(주)는 평가일 현재 유진투자증권(주)의 단기신용등급(기업어음 및 전자단기사채)을 A2+로 부여하고 있다.

본 평가는 서울신용평가(주)의 SF 신용평가 일반론을 적용하였고, 산업별 평가방법론(증권)도 준용했습니다. 신용평가방법론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서울신용평가(주)의 홈페이지 www.scri.co.kr의 "Research/평가방법론"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당사가 본 건 신용평가등급 산정에 이용한 중요자료는 유동화회사 관련서류, 유동화자산 자료, 유동화관련 계약서, 기타 주관회사에서 제공한 자료 등입니다.

당사는 본 건 신용평가등급 산정 시 거래참가자 주식에 표기된 정보제공자로부터 자료를 수령하여 신용평가에 반영하였습니다.

[단기신용등급의 정의]

신용등급	정의
A1(sf)	적기 상환능력이 최상이며, 상환능력의 안정성 또한 최상이어서 투자위험도가 극히 낮음.
A2(sf)	적기 상환능력이 우수하지만, 그 안정성은 A1(sf)등급에 비하여 다소 열등한 요소가 있음.
A3(sf)	적기 상환능력은 양호하나 장래의 급격한 환경변화에 따라 그 안정성이 다소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음.
B(sf)	적기 상환능력은 인정되지만 그 안정성에 다소 투기적인 요소가 내포되어 있음.
C(sf)	적기 상환능력이 의문시되어 투기적 요소가 강함.
D(sf)	채무불이행 상태에 있음.

주1: 상기 등급 중 A2(sf)부터 B(sf)까지는 당해 등급 내에서의 상대적 우월 정도에 따라 +, - 기호를 부기할 수 있음.

주2: 상기 등급 중 A1(sf)등급에서 A3(sf)등급까지는 적기 상환능력이 인정되는 투자등급으로, B(sf), C(sf) 등급은 환경변화에 따라 적기 상환능력이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투기등급으로 분류됨.

- 본 신용평가의 평가개시일 및 계약체결일은 2017년 4월 12일이며, 평가완료일은 2017년 4월 19일입니다.
- 최근 2년간 평가요청인과 체결한 다른 신용평가 건수 및 수수료총액은 각각 0건, 0백만원입니다. 당사는 평가완료일 현재 평가요청인의 다른 신용평가용역을 수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평가요청인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집단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최근 2년간 평가요청인과 체결한 비평가용역계약 체결 건수 및 수수료 총액은 0건, 0백만원이며, 당사는 평가완료일 현재 평가요청인의 다른 비평가용역을 수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유의사항>

1. 신용등급은 특정 금융투자상품, 금융계약, 발행자 등의 상대적인 신용위험에 대한 현재시점에서의 서울신용평가(주)의 의견입니다. 신용등급은 신용위험을 제외한 다른 위험(시장가치 변동위험, 유동성위험, 운영위험 등의 여타 위험)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특히, 구조화금융상품의 신용등급은 법령, 조세제도의 변경 등에 따라 발생하는 위험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또한 신용등급은 현재 또는 과거 사실에 관한 서술이 아니며, 당사의 평가기준에 따라 신용위험에 대하여 예측한 의견으로서, 이러한 예측정보는 실제 결과치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신용등급은 환경변화 및 당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2. 신용등급은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자문을 의미하지 않으며, 특정 증권의 투자의사결정(매매, 보유 등)을 권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용등급이나 평가의견 등은 정보이용자의 투자결정을 대신할 수 없으며, 정보이용자의 투자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정보이용자들은 유가증권, 발행자, 보증기관 등 투자대상의 위험에 대해 자체적인 분석과 평가를 통해 투자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3. 본 평가서 및 의견서 등 보고서는 평가대상자 또는 의뢰인이 제출한 자료 및 각종 공시자료 등의 자료원으로부터 수집한 자료에 근거하고 있으며, 당사는 평가대상자 또는 의뢰인으로부터 제출자료에 거짓이 없고, 중요사항이 누락되지 않았으며 중대한 오해를 유발하는 내용이 들어있지 않다는 확인서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평가대상자 또는 의뢰인이 정확하고 완전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한다는 전제하에 신용평가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신용평가 과정에서 이용하는 정보에 대해 별도의 실사나 감사를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신용평가의 특성 및 자료원의 제한성, 분석자, 분석도구 또는 기타 요인에 의한 오류의 발생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신용등급 결정시에 활용되었거나 평가보고서에 주요 판단근거로서 제시된 어떠한 정보에 대해서도 그 정확성, 적합성 또는 충분성을 보증하지 않으며, 제공된 정보의 오류, 사기 및 허위, 미제공 등에 따른 결과에 대하여 당사는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4. 당해 신용등급 및 평가의견을 포함한 보고서에 반영되었거나 포함되어 있는 정보 및 기재내용의 정확성, 완전성 및 적합성을 당사가 보증하거나 확약하지 않습니다. 평가의견을 포함한 신용평가서의 모든 정보들은 신용등급 부여에 필요한 주요한 판단 근거로서 제시된 것이며, 평가대상에 대한 모든 정보가 기재된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당사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기인한 사항을 제외하고 신용등급 및 평가의견을 포함한 신용평가서상의 정보의 이용으로 발생하는 어떠한 손해 및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5. 본 보고서에 수록된 모든 정보의 저작권은 서울신용평가(주)의 소유입니다. 따라서 당사의 사전서면동의 없이는 무단 전재되거나 복사, 인용, 재판매 또는 유포될 수 없습니다.